



이영신의 CD-ROM 산책

소프트웨어 툴웍스 멀티미디어 백과사전

(The Software Toolworks Multimedia Encyclopedia)

마 치 장식품처럼, 수십권짜리 백과사전 전질이 서가의 여러칸을 채워가며 꽂혀있던 시대가 가고 있다. 이제는 뉴미디어시대. 『책』의 개념, 『백과사

전』의 개념이 바뀌고 있다. 더 이상 글자와 그림/사진이 종이 위에 인쇄되어 있는 평면적 매체가 아니다.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두껍고 무거운 책을 이

리저리 뒤적일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는 CD-ROM 단 한장에 수십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다. 게다가 종이책이라는 매체를 가지고 고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정보까지 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살펴볼 『소프트웨어 툴 위크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은 무려 3만3천여 개의 기사들이 포함된 백과사전 21권, 사진과 그림 3천여장, 지도 2백5십여장, 애니메이션 30여개, 음성정보 클립 30여분 분량, 비디오클립 50여개 등을 직경 12센티미터의 CD-ROM 한장에 고스란히 담았다. CD-ROM의 막대한 저장능력, MPC(멀티미디어 PC)의 다양한 매체처리능력을 한껏 맛볼 수 있는 작품이다. 도스와 윈도우버전이 모두 나와있는데 여기서는 윈도우버전을 살펴보았다.

우선 멀티미디어백과사전이 종이백과사전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자. 종이책에는 가나다순이건 주제분류별이건 편집자가 지정한 순서대로 기사의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제2차대전』이라는 기사는 제12권의 234페이지에 나와있고 『독수리』라는 기사는 제6권의 15페이지에 나와있다. 그 책을 새로운 순서로 다시 편집하여 인쇄하지 않는 한 기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독자가 책의 이 페이지 저 페이지를 찢어내서 새로 끼워맞추는 극단적,

인 방법을 쓰지 않는 한 한번 정해진 기사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즉, 종이책은 고정된 형태



**무려 3만3천여개의 기사들이
포함된 백과사전 21권, 사진과 그림
3천여장, 지도 2백5십여장,
애니메이션 30여개, 음성정보 클립
30여분 분량, 비디오클립 50여개
등을 직경 12센티미터의 CD-ROM
한장에 고스란히 담겨**



를 지닌 물체이다. 전자책은 그렇지 않다. 고정된 페이지라는 개념이 없다. 기사는 다양한 순

서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읽혀질 수 있다. 수만개의 기사중에서 독자가 원하는대로 기사리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저 기사로 옮겨가는 방식도 자유롭다. 무거운 책을 꺼내고 뒤지고 할 필요가 없다. 마우스단추 한두번만 누르면 제1권에서 20권으로 또 다시 7권으로 단숨에 달려갈 수 있다. 게다가 책에서 소리도 나오고 그림도 움직인다.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에 품고 있는 풍부한 정보와 다양한 전달방식을 몇줄의 글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 이 부분, 저 부분을 피상적으로 그려줄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불완전한 그림일지언정 아직 멀티미디어책을 접해보지 못한 독자들에게 종이책과는 다른 묘미를 보여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이달의 산책을 시작한다.

멀티미디어백과사전은 종이책으로선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정보욕을 채워준다. 아주 효과적이고 새로운 학습도구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인간이 최초로 달에 내리는 장면, 우주유영을 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볼 수 있다. 존 에프 케네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한 연설을 직접 보며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에어컨의 작동원리, 천동/번개가 치는 원리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다. 제시 오웬스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뛰는 장면도 볼 수

있다. 각종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다. 글로 설명하고 묘사하기에는 힘들었던 정보들이 이제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콜로, 클라리넷, 오보에, 바순의 소리를 아무리 글로 잘 묘사한들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만 못할 것이다. 종이책에서는 글로된 소리 설명을 읽고 상상해야 하지만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에서는 수십종의 악기 소리를 하나씩 들어볼 수 있다. 물론 그 악기와 관련된 텍스트 기사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함께 불러내서 읽을 수 있으니 악기의 역사면 유래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툴 워크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에서는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도 다양하다. 우선 낮은 윈도우 인터페이스에서 화면상단에 있는 검색메뉴(Search)를 선택해보자. 풀다운메뉴가 내려온다. 여기엔 여러가지 검색옵션이 나타나 있다. 『제목리스트(Browse Titles)』, 『단어검색(Word Search)』, 『단어 색인보기(Word Index)』, 『주제분류(Knowledge Tree)』, 『연표(Timeline)』, 『지고색인』, 『사진/그림색인』, 『애니메이션색인』, 『소리색인』, 『비디오색인』 등이 그것들이다. 이들은 또한 모두 아이콘으로 만들어져 화면상단에 나타나 있으므로 굳이 메뉴를 거치지 않고 마우스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곧바로 원하는 검색모드로 들어갈 수도 있다. 여러가지 검색법중에서 우



선 멀티미디어 백과사전인 만큼 텍스트이외의 미디어를 검색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소리색인』을 선택하면 우선 5가지 큰주제(1. 동물소리, 2. 새소리, 3. 유명한 연설, 4. 악기, 5. 명곡모음)가 떠오른다. 예를 들어 『동물소리』를 선택해보자. 각종 동물이름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가운데서 원하는 동물을 선택하면 그 동물의 울음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명곡모음』에는 「베토벤 5번 교향곡」, 「쇼팽의 야상곡」 등 주옥같은 명곡의 일부가 발췌되어 실려있다. 『유명한 연설』 들어가면 「링컨」, 「루즈벨트」, 「맥아더 장군」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남긴 유명한 연설들을 그들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

『비디오색인』을 선택하면 6가지 큰 주제(1. 동물의 세계, 2. 역사적 사건/인물, 3. 식물, 4. 과학/기술, 5. 우주탐험, 6. 미국 대통령)가 나타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소주제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인물』을 선택하면 「마하트마 간디」, 「아돌프 히틀러」, 「노르만디 상륙」, 「세계 제1차대전의 종식」 등 15개의 주제가 나타난다.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주제에 관한 비디오 클립을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색인』을 선택하면 우선 5개의 큰주제(1. 인간의 신체, 2. 간단한 기계원리, 3. 물리작용, 4. 지구, 5. 천문/기상)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인간의 신체』라는 주제를 선택하면 「태아의 성장과정」, 「발성

원리, 「심장, 「귀」등 8개의 소주제가 등장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마치 만화영화를 보듯 심장이 박동하는 모습, 귀의 구조와 소리가 귀에 전달되는 과정 등을 재미있고 알기 쉽게 볼 수 있다. 말로만 듣는, 혹은 글로만 보는 설명에 비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은 분명하다.

『사진/그림색인』은 다른 색인과 마찬가지로 사진/그림 검색의 편리를 위해 사진과 그림들만 주제별로 따로 모아놓은 것이다. 우선 34개의 큰주제(예 : 지리, 법조인, 철학자, 음악, 무용, 문학, 동물, 식물...)가 알파벳순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주제아래의 더 세분화된 주제(예 : 『동물』을 선택하면 양서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가 나타난다. 이런식으로 차례차례 세분류로 내려가면 해당주제아래 배치되어 있는 각 사진/그림의 제목리스트까지 접근하게된다. 여기서 원하는 사진/그림을 선택,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진/그림과 관련있는 텍스트 기사들을 그 자리에서 즉각 화면에 띄워 읽을 수 있다.

『지도색인』은 종이책으로 치면 백과사전 전권 곳곳에 흩어져있는 지도들을 한데 모아놓아 독자로 하여금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역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원하는 국가나 지역의 지도로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그

국가/지역과 관련된 텍스트 기사를 즉시 찾아볼 수 있다.

『제목리스트』는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기사제목리스트중에서 원하는 제목을 선택하여 보는 방법이다. 기사의 본문이 화면

에 나타나있는 모습은 어느 종이책의 한 페이지를 컴퓨터 화면위에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화면상단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나타나 있다. (단, 기사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아이콘의 수와 종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녹음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생/되감기 표시처럼 생긴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페이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페이지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 기사의 구성(큰제목, 중간제목, 소제목 등)을 한눈에 보여준다. 사진기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 기사와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이 나타난다. 헤드폰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영사기모양의 아이콘은 이 기사와 관련된 비디오정보가 있다는 소리이다. 슬라이드 필름모양의 아이콘을 애니메이션을 상징한다. 예를 들어 『독수리』라는 제목의 기사는 독수리에 관한 글과 그림뿐만아니라 독수리의 울음소리, 독수리가 수면으로 하강하여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까지 담고 있다. 또 『호흡작용(Respiratory System)』이라는 기사는 인간의 호흡작용을 글로 설명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작용을 만화를 재현시킨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이렇게하여 글이나 정지된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종이책의 한계를 전자책

은 뛰어넘게 된 것이다.

『단어검색 (Word Search)』은 찾고자하는 단어나 단어들의 조합을 입력하여 그 단어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기사는 모조리 검색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코끼리(Elephant)』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70개의 기사에서 모두합쳐 120번 등장한다고 검색결과가 나온다. 즉, 코끼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한 순서로 기사제목리스트와 그 기사안의 단어 등장횟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코끼리』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코끼리라는 단어가 19번 나오고 『포유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그 단어가 9번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이런식으로 코끼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다양한 문맥과 환경을 찾아낼 수 있다. 여기서 원하는 기사제목을 선택하면 그 기사본문이 곧바로 화면에 떠오른다. 본문에는 코끼리라는 단어가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으므로 쉽게 눈에 띈다. 또다시 단어검색화면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코끼리』 그리고 『상아』를 입력해보자. 이렇게하면 코끼리와 상아라는 두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3개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런식으로 원하는 주제를 나타낼만한 단어들을 조합하여 입력함으로써 원하는 기사를 찾아낼 수 있다.

『주제분류』는 대분류로부터 중분류, 소분류로 차근차근 접근해가는 방법이다. 가장 큰 대

분류는 『예술』, 『지리』, 『역사』, 『과학』, 『사회』, 『기술』 등으로 이뤄져있으며 여기서 『예술』을 선택한다면 『신문방송』, 『언어와 문학』, 『행위예술』, 『시각예술』 등의 중분류가 나온다. 여기서 『음악』을 선택하면 세분류인 『블루스음악』, 『교회음악』, 『재즈』 등 여러가지 음악장르가 나온다. 이중 한장르를 선택하면 다시 또 한단계 밑으로 더 내려가 관련 주제들이 나오는 것이다. 자신이 찾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하는지, 어떤 제목으로 찾아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독자는 이러한 주제분류식 접근방법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연표』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BC 40,000년부터 AD 1990년까지 연대기별로 쭉 나열해 놓은 표에서 정보를 찾는 방법이다. 원하는 연도를 입력하면 연표의 그 해에 일어난 사건들 부근으로 이동하게 되며 그중에서 원하는 사건을 선택하면 관련기사로 이동하게 된다. 어떤 해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거나 연도중심으로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이다.

여태까지 정보를 검색하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 대략적으로 훑어보았다. 독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검색법이나 색인을 선택해야 멀티미디어백과사전의 성공적인

이용이 쉬워진다. 『소프트웨어를 워드 백과사전』은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비교적 쉬운 검색 인터페이스를 가졌다고 생각된다. 이 백과사전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었다. 이 사전은 물론 영어로 그리고 서구중심의 정보로 가득차 있다. 언제까지 외국 것을 보며 감탄만 해야하는가. 우리말, 우리의 정보를 가득 담은 한글 멀티미디어백과사전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우선 CD-ROM드라이브의 보급이 확산되어 업체들이 뛰어들만큼 시장 성숙도가 높아져야 하겠지만 우리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소명감에서 남보다 한발짝 빨리 나서주는 누군가가 없을까.